

## ‘보성 녹차’ 세계가 마신다

녹차엑스포 개최 등 ‘세계화 플랜’ 추진  
경제효과 年 1조...郡 총생산액 40% 차지

전남 대표 웰빙상품 보성 녹차의 상승세가 폭발적이다. 한국 녹차의 대표 주자로 자리잡은 보성 녹차는 그 직간접 산업규모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순천대 송경환 교수팀의 2005년 연구에 따르면 녹차산업 규모는 ▲녹차 생엽 484억원 ▲보성 녹돈 12억원 ▲녹차가공식품 3천344억원 등의 직접규모외에 관광산업등 연관산업을 포함하면 총 1조원에 달한다. 녹차산업의 국내시장 성장세가 2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보성 녹차산업 규모는 가히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음료시장에서 동원F&B와 코카콜라 등의 보성 녹차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어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고 있다. 김태환 보성녹차산업단지장은 “1천727명의 고용창출까지 감안할 경우 보성 녹차산업의 경제

효과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녹차산업은 보성군 총 생산액의 40%에 육박, 지역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성장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보성녹차는 국내를 넘어 세계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보성군은 2004년 중국 심양시에 홍보·판매소를 개설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뉴욕 퀸즈버로에서 보성 녹차엑스포 행사를 갖고 1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또 매년 열리는 다항제를 세계녹차엑스포로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에는 중국·일본 등이 참여하는 세계녹차페스티벌을 개최한 뒤 오는 2010년 공인된 국제행사로 ‘2010 세계 녹차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이다. 보성녹차의 드라마틱한 성공은 민선자치의 성과다. 1990년대 중반, 전국적인 녹차 소비 부진과 함께 혹독한 겨울 추위로 보성의 다원은 황폐화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민선 1기 중반을 넘기면서 보성군은 만성적인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보성녹차를 성장동력산

업으로 선정했다.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청정지역에다 주·야간의 온도차가 크고, 안개일수가 많아 최고의 녹차재배지로 알려진 보성의 독특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보성군이 차 재배농가에 과학적인 지원을 하면서 1997년 326ha에서 연간 50t에 불과하던 녹차생산량은 지난해 885ha, 1천126t으로 전국의 36%를 돌파했다. 이 과정에서 재배농민들은 차 재배에서부터 품종개발·생산·가공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참여로 녹차의 품질을 높였다. 특히 보성군은 타지역 녹차가 보성녹차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 지역특산물의 지역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제 전국 1호로 보성녹차를 등록했다. 보성녹차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웰빙식품으로 자리매김한 데는 이같은 보성군과 재배농민들의 끈질긴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정중해 보성군수는 “보성녹차가 세계적인 식품이 될 수 있도록 ‘세계화 플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신품종·신제품 개발, 마케팅 및 유통 체계, 관광산업 등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보성=안구일기자 giahn@kwangju.co.kr



보성녹차가 대표적인 웰빙식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경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보성 북재에서 내려다본 환상적인 녹차밭. 아래 왼쪽은 다양한 녹차제품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전남땅 44% 외지인 소유

땅부자 1%가 전국토지 57% 보유

전남지역 토지 면적의 거의 절반인 44%를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상위 1%의 땅부자(약 50만명)들이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토지 편중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시·도의 토지 소유 실태를 관내 거주자와 외지인으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관내 거주자가 전체 면적의 58.7%를 차지했고 외지인이 나머지 41.3%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지인의 토지 소유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서울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지인 토지보유 비율을 소유 토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충남이 가장 많고, 부산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 기준으로 볼 때 전남도의 외지인 소유 면적은 43.9%로, 강원도 47.6%, 충북 47.0%, 경북 46.8%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중 4번째를 기록했다. 주로 광역시보다는 도 단위 광역단체의 외국인 토지 면적 비율이 높았다. 광주시의 경우 외지인 소유 면적이 23.2%에 달했다. 토지금액 기준 관내 거주자 보유

비율은 부산이 88.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 88.2%, 서울 86.3%, 울산 84.0%, 전북 83.0%, 광주 82.6%, 대전 81.7%, 경남 80.7%, 제주 80.6% 순이었다. 토지 소유를 면적기준으로 분석하면 전국 시·도 중 서울지역 토지소유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 즉 관내 거주자 비율이 84.8%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79.2%, 대구 77.7%, 광주 76.8%, 대전 73.6% 등 광역 대도시들에서 관내 거주자의 소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함께 땅부자 상위 1%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7.0%를 차지, 토지 편중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희종기자 chae@

## ‘패트리엇 부대’ 13일 광주 떠난다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주둔 중인 주한 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가 오는 13일 ‘고별식’을 갖고, 1년 10개월 만에 광주에서 완전히 떠난다.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 관계자는 “13일 지역 인사들을 부대로 초청해 고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고별식에는 데이비드 벨코트 주

한 미 8군사령관, 게리 트렉슬러 7공군사령관, 이봉원 31사단장, 고경운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등이 초청될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는 고별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주둔 기간 동안 미군이 거둔 성과 등을 소개하고, 일부 인사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부대에 배치돼 있던 ‘패트

리엇 미사일III’ 16기와 450여 명의 ‘미 8군 방공여단 방공대대’ 소속 미군 대부분은 이미 경북 왜관 미군부대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04년 11월 30일부터 광주에 주둔해온 주한 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는 연내에 대구 인근으로 옮기기로 하고 이전을 추진해왔다. /임주형기자 jhlim@

## 與, 대선후보 ‘100% 국민경선제’로

선출방식 확정 발표

열린우리당은 내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100%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형태로 치르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별 순회 당원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해온 당 오픈 프라이머리 테스크포스(TF)의 종합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TF내에 설치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완

전국민경선제 도입에 필요한 법률당안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작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부분적으로 반영할지 여부는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 입상작 전시회  
추석연휴까지 연장전시 합니다. 광주 지하철도광남로5가역  
광주일보시 ▶ 문의 1260220-0541

포항공과대학교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

최복호 김동원